전략리뷰
Reviews on Views and Insights
2021-2호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의 미중관계 전망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의 미중관계 전망

쉬부(徐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중미교류기금회 공동 주최 "현시기 중미관계: 방향과 경로" 화상 회의 발언 / 2021.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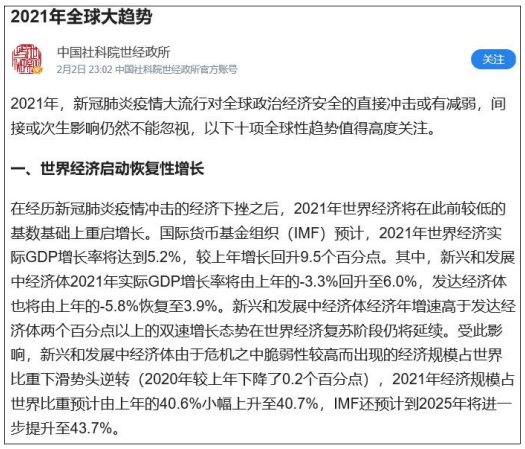
“현재, 중미관계는 이미 새로운 십자로에 진입했다. 쌍방은 마땅히 기회를 장악하여 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성을 회복하여 중국과 한 길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 바른 궤도로 돌아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평화공존, 협력윈윈을 원한다. 미국은 마땅히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인민이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중국 인민이 한층 더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쉬부 원장은 6자회담 당시 한반도 사무 부대표를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 이는 미중 갈등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것으로 향후 미중관계의 해빙 가능성은 전적으로 미국의 적극적 조치에 달려 있다는 미국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평가. 특히 미국의 대(對)중국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미국의 간섭에 대응하는 것은 중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중국 내 주류 인식을 드러냄

중국사회과학원(CASS)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IWEP)
“2021년 글로벌 대추세(2021年全球大趋势)” 연구 성과 발표 / 2021. 2. 2

“미국과 유럽이 손잡고 이데올로기 공세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이 민주주의 가치관 지지를 명분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2021년 들어 ‘민주 사회·시장경제 국가’ 대 ‘비민주 사회·비시장경제 국가’ 간 차이와 대립 심화될 것”



2021年全球大趋势

中国社科院世经政所
2月2日 23:02 中国社科院世经政所官方账号
关注

2021年，新冠肺炎疫情大流行对全球政治经济安全的直接冲击或有减弱，间接或次生影响仍然不能忽视，以下十项全球性趋势值得高度关注。

一、世界经济启动恢复性增长

在经历新冠肺炎疫情冲击的经济下挫之后，2021年世界经济将在此前较低的基数基础上重启增长。国际货币基金组织（IMF）预计，2021年世界经济实际GDP增长率将达到5.2%，较上年增长回升9.5个百分点。其中，新兴和发展中经济体2021年实际GDP增长率将由上年的-3.3%回升至6.0%，发达经济体也将由上年的-5.8%恢复至3.9%。新兴和发展中经济体经济年增速高于发达经济体两个百分点以上的双速增长态势在世界经济复苏阶段仍将延续。受此影响，新兴和发展中经济体由于危机之中脆弱性较高而出现的经济规模占世界比重下滑势头逆转（2020年较上年下降了0.2个百分点），2021年经济规模占世界比重预计由上年的40.6%小幅上升至40.7%，IMF还预计到2025年将进一步提升至43.7%。

“바이든 정부는 ‘규칙에 기반한’ 동맹을 내세우며 중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규칙 봉쇄’를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비확산·글로벌 보건안보 등 영역에서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不冲突), 대항하지 않으며(不对抗), 상호존중(相互尊重)과 협력윈윈(合作共赢)의 정신에 따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聚焦合作), 갈등을 관리 통제하며(管控分歧), 쌍방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추동하기를 일관되게 희망”

☞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2021년은 대립과 갈등, 협력과 공존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나란히 이미 G2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표출

위안펑(袁鹏)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니콜라스 샤퓌(Nicolas Chapuis) EU 주중대사 일행과 대화 / 2021. 2. 2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인문교류 회복, 방역 협력, 경제관계 재구성 등 영역에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유럽연합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한다."

☞ 위안펑 원장은 중국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대립과 갈등의 정도가 낮은 인문교류, 방역, 경제 등 영역에서부터 협력을 진행하자는 단계론적 접근 의사를 피력. 이러한 접근은 양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를 일단 접어두고 공감대 확보가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협력을 모색하자는 일종의 구동존이(求同存異) 인식을 내포

○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대립과 갈등 못지않게 협력과 공존의 관계라는 현실 인식을 폭넓게 갖고 있으나 갈등의 해결 방안 모색에 앞서 미국의 대(對)중국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중국이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에 대한 비판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대항 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

○ 다만,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위한 첫 단추로서 인문교류, 방역,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 이슈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바, 미중관계 변화 가능성은 이 부분에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구동존이(求同存異)' 자세로 새로운 관계 모색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진핑 시기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로 변화해온 중국의 대외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매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

(정리: 양갑용 외교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